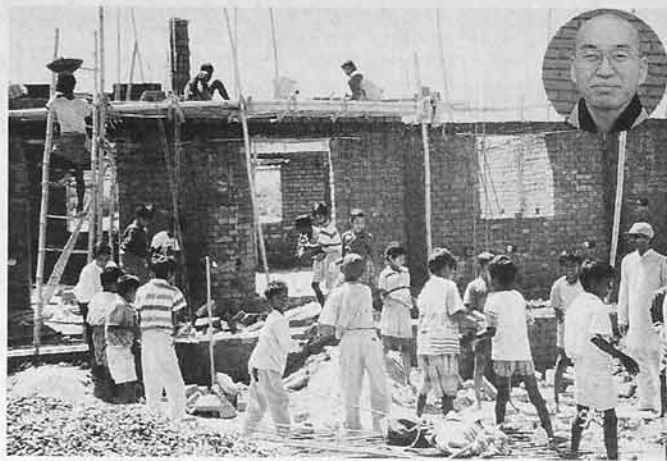


한국불자들,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에 학교 세웠다

“공부하고 싶은 어린이 다 오세요”

성도절 화제



◇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 두르가푸르마을에 한국불자들의 성금으로 국인학교 '수자타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원안은 법륜스님.

'수자타 아카데미' 150명 인도어린이 공부 8대성지서 교육·의료 봉사... 법륜스님 원력

다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설립에 앞장선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정토회 국제사업부 Jain Together Society가 설립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만나서(Jain) 함께(Together)하는 모임(Society)이라고 설명한다. 법륜스님은 그러나 '돕는다는' 차원이 아님을 강조한다. 인도인들은 한마을에서 대대로 수천년을 살아오는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후손들이 분명하다. 가난한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사람의 자손들이고 그들에게 부처님을 따르는 불제자로서 '은혜를 갚는 것'이고 '회향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다.

지난 11년 인도 성지순례중 한 걸음 여인과의 만남으로부터 '부처님 자신들에게 회향' 원력을 세우게 됐다. 법륜스님은 다음해 '유명종(부처님이 고행한 곳)'을 찾아가 두르가푸르 마을과 만나게 된다. '아아 양노' 건립의 원력을 세워놓았다고 법륜스님은 귀띔한다. (이경숙 기자)

학교 설립은 이루어졌다. 땅을 파고 벽돌을 나르고 못길을 하는 학교건물공사에는 법륜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 온 마을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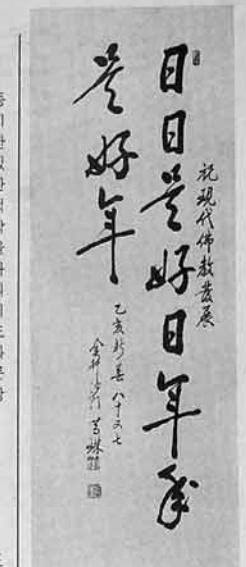
J.T.S는 또한 지행이 낮아 홍수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웨스트벵갈주 탐복에 이동무르진로소도 세워 주었다.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인도, 우리는 8만명 이면 죽어가는 결핵환자 1명을 살릴 수 있고, 담배 한가지를 안먹을 수 있다고 한다. 법륜스님은 "우리 한국이 살기 좋아졌으니 제 3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부처님 나라이기에 중생을 무명에서 건져준 부처님의 은혜를 회향한다는 의미에서도 인도 전역에 불교를 퍼실리했다"는 각오로 한국 불자들이 나서야 할 것임이다.

인도의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싶단 태태자가 태어나 뽀뽀에 '사달타 학교', 혼다가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쿠시나거리에 '혼다 병원', 여성이 최초로 출가했던 곳인 바이살리에 '알라발리 여학교' 그리고 부처님이 천상에 계신 마야부미에 설립을 하고 내려오신 상카시아에 '아아 양노' 건립의 원력을 세워놓았다고 법륜스님은 귀띔한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선학원 만남 무산

선학원 임시 이사회 열어, 합리적 절차 요구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범종)와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구립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선학원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역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조계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선학원에 증여된 재산은 명백한 공적 재산이므로 사설 사업과 법인소속사업에 동일



선년회호·석주스님

원광국사 세속오계비 건립

화랑정신의 발상지 운문사 입구에

신라 화랑정신 발상지인 청도군 운문사 운문사 입구에 원광국사의 화랑 세속오계비석이 세워졌다. 구립 22일 열린 제막식에는 청도군 관계자와 스님 주임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청도군이 이번 세속오계비석을 건립하게 된 것은 신라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운문사 일대를 기리기 위해서이다. 이 세속오계비는 자연석 화강암 받침대에 높이 3.5m 너비 3m의 화강암에 '화랑오계'가 음각되어 있다.

소년가장등기 정기연주

대한불교 소년합창단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단장·황희원)은 소년소녀가장등기를 위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한국일보사 13층 연주홀에서 갖는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찬불곡요 10곡, 민요 3곡, 창작품요 3곡등을 공연한다. 지휘는 박이재교수(중앙대)가, 민선회사가 반주를 각각 맡는다.

전통차 다기 대전

6-11일 경방백 백화점

95 한국전통차 다기 종합대전이 관리방의 주관으로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영등포 경방백 백화점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다도시범 및 강좌, 녹차 무료시음회, 국내우수품과 회귀다도구 전시판매 등으로 펼쳐질 이번행사는 한국전통차와 다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문화사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불교연문인의 밤' 성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변대용)는 구립 26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홀에서 '불교연문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륜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자일스님, 분사 회정회 편집국장, 불교신문 김경찬 편집국장, 불교TV 송상성 제작국장 등 교계 인사와 기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10일, 천일기도 입재

광명선원 2월기법

분사서 서울교단 광명선원(주지 초경)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명종 광명선원법당에서 개년 2주년을 맞아 대법회 및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 마쳐

윤리강령 결의, 강연·오락행사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불교청년회와 대한불교청년회연합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가 구립 18일 대전 보현문화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학생대표의 청소년 헌장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표창과 청소년 윤리강령 결의, 이기열교수(동국대)의 '청소년의 도덕적 회복'을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이어졌다. 종실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창조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다함께' 시간에는 법륜스님과 함께 한 레크리에이션을 비롯 학생대표들의 찬양, 현대무용, 사물놀이 등이 무대를 가득 메워 이날 대회를 참가한 2백여 청소년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조직 새롭게 정비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정화, 이하 '승가회')는 구립 23일 승가회 사무실에서 제15차 집행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94년도 사업 및 재정보고, 안전토론회 있었다. 안전토론회에서 오는 2월 20일 총회를 갖기로 하고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효립스님과 12명 준비위원을 선출해 94년 총괄적인 사업결과와 95년도 사업계획안을 구성하여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봉춘씨 등 4명 선정

10회 불이상 시상

제10회 불이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불이(회장 총라회)는 연구분야에 이봉춘씨(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실천 분야에 조일조법사(육군 제2군 사령부 군종장교), 장학분야에 이상철씨(동국대 박사과정), 출가면학분야에 일진스님(일본 불교대학원에 재학)을 선정, 오는 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3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종단초월 공동발전 모색

'조계·태고 분규해결위' 구성

11년이후 종단내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은 구립 21일(가칭) '조계·태고 분규해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산(교육인장) 정홍(종단목적사업추진위원장) 범하(총무원장) 지명(기획실장)스님 등 집행부 간부위원으로 7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계·태고 분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은 승원주, 총무원장이 위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학원 대각의 문제와 함께 태고종과의 분규사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계종은 종안승가대 이집에 따른 막대한 비용의 재원 마련에 분규사찰인 봉원사의 유류채산을 매각 한다는 방침이며 태고종과의 분규사찰 논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은 구립 26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회 조계종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재의를 볼 바 없다"고 전제하고

교계의 한 관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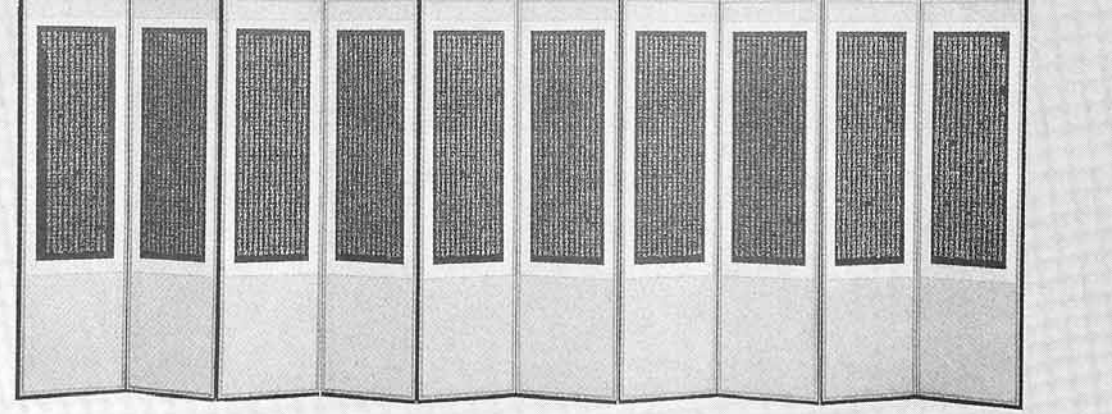
강남봉은사가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이는데 예산의 사활을 희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땅의 매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들 돕기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26일 호남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본부장 윤정관)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국악인 김명동씨, 가수 노영심, 김광석씨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의 선율을 펼쳐 보였다. 공연에 이어 법륜스님은 소년소녀가장 17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금강경(후면) 10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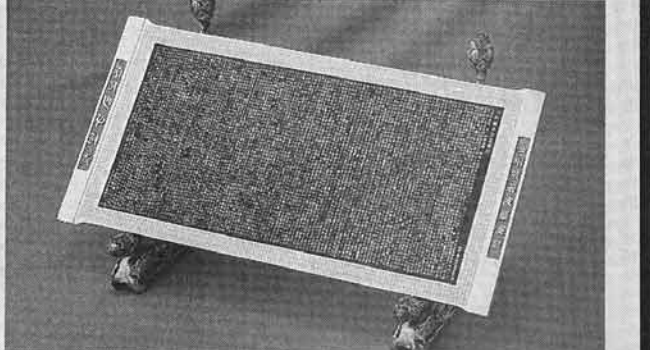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금강경 이제는 가격부담없이 모실수 있습니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대투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쪽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닦게 하였습니다.



- 특징
 -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솜씨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 규격
 - 높이: 5자8치(175.8cm)
 - 폭: 14자5치(439.5cm)
 - 재질: 스기목, 양면비단, 스포사 특수지
- 포교가격
 - ₩ 49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 특별가격 ₩480,000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진대중께 포교의 일환으로 정성을 다하여 조성한 금강경 같은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 규판규격: 505×255×8 (㎜)
 • 재질: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글로벌서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벌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문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 문의처: (02)732-6095~6

불교전통포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드립니다.